

# “새잎 돋는 계절 나무 조명 조속 철거해야”

산림과학원, 나무 조명 피해 연구

전구 온도 28도... 잎·줄기 말라

철거 시 꽃눈 다치지 않게 주의

나무에 설치해 둔 장식 전구는 늦어도 3월 전에는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축제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도심 야간 경관을 위해 가로수나 조경수 등에 설치한 전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나뭇잎이나 줄기가 마르는 등 피해가 3월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 연구과 김선희 박사는 “야간조명 전구의 설치로 나무들이 완전히 휴면상태가 되는 겨울철부터가 적절하며, 상록침엽수는 3월 전에, 낙엽 활엽수는 꽃이 피기 전이나 잎이 나기 전(3~4월)까지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조명시설 제거시에도 꽃눈이나 잎눈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하며 줄기에 매어놓은 전깃줄이나 철사줄 등도 남김없이 제거하여 생장에 필요한 양분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가 상쇄할 수 없어 그 피해가 커진다는 게 산림청 설명이다.

또 봄철인 3~4월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나무가 활동을 시작하는가 하면 잎이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장식전구 등 주변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새로 돋아나는 풀, 새 잎 등은 성장 초기로 연약하기 때문에 전구가 이들 부위에 접촉되거나 집단으로 열을 발산할 경우 열해(熱害)가 나타날 수 있어 야간 조명시설을 가둬둬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밤기의 장식전구는 그러나 꽃이 피는 시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등 나무에 생리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빛나무를 상대로 4월 초 꽃피는 시기와 꽃눈의 크기 등을 조사한 결과 장식전구를 설치한 나무와 설치하지 않은 나무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 연구과 김선희 박사는 “야간조명 전구의 설치로 나무들이 완전히 휴면상태가 되는 겨울철부터가 적절하며, 상록침엽수는 3월 전에, 낙엽 활엽수는 꽃이 피기 전이나 잎이 나기 전(3~4월)까지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조명시설 제거시에도 꽃눈이나 잎눈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하며 줄기에 매어놓은 전깃줄이나 철사줄 등도 남김없이 제거하여 생장에 필요한 양분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새잎이 돋아나는 3월에는 나무에 설치한 장식 전구를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성차밭 빛축제'의 조명을 설치한 나무. <광주일보 자료사진>

다. 한편 나무는 대기온도가 5도 이하인 겨울철이 되면 생리적 활동(광합성, 증산작용)을 거의 하지 않아 낙엽수는 잎을 떨어뜨리고 생리적으로 휴면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소나무와 같은 상록성 나무도 거의 활동을 멈추고 이 시기에 제한적으로 나무에 장식전구를 설치하는 것이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봄철 불청객 황사...사포닌 풍부한 도라지로 대비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봄철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를 도라지로 대비해보는 건 어떨까.

농촌진흥청은 황사와 미세먼지에 도움이 되는 약초 도라지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라지 활용법을 제시했다.

도라지의 한약명은 '귀하고 길한 풀뿌리가 곧다'라는 뜻의 '길경'으로 가래를 배출하는 효능이 탁월하다. 도라지를 먹으면 기관지 점막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이 되며, 미세먼지 흡입으로 손상되기 쉬운 폐를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동의보감'에도 심한 기침이나 숨이 가쁜 천식에 도움이 되며 목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래가 끓는데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다.

영양학적으로는 섬유질, 칼슘, 철이 풍부하게 들어 있고 기관지 점막을 튼튼히 하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건강기능식품 소재로서 가치가 높다.

도라지는 특유의 쓰고 텁텁한 맛이 있어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쉬우나 도라지무침이나 도라지볶음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다. 특히, 배도라지청이나 도라지강정으로 먹

### ■ 도라지 쓴맛 없애주는 간편 요리들



배도라지청



도라지볶음



도라지강정

으면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다.

향긋한 차나 감칠맛 나는 소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배도라지청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깎 도라지와 꿀을 같은 양으로 준비한다.

도라지 청에 배를 넣으면 맛과 효능이 배가 된다. 배는 기침, 가래 등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배, 깎 도라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차례로 믹서에 간 뒤 끓여주면서 꿀을 넣고 약한 불로 최소 1시간 이상 끓인다. 마지막에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된다.

도라지 강정은 식초 물에 하루밤 정도 담근 뒤 소금물로 헹구 특유의 쓴맛을 없애고 튀김옷 재료를 넣어 섞어 바삭하게

튀긴다. 물엿,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케첩을 꿀에 소스를 만들고 튀긴 도라지를 소스에 버무린다. 국내산 통 도라지는 중국산에 비해 길이가 짧으며 잔뿌리가 많고 흠이 많이 묻어 있다. 또, 국내산 깎 도라지(썬은 도라지)는 통그렇게 말리는 성질이 약하고 고유의 향이 더 강한 편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환경연합,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철회 촉구

“생태계 악화 초래할 것”

친수구역

광주시 남구가 영산강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위해 TF를 꾸리고 사업의 추진의 기본 방향을 밝히자 지역 환경단체가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23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 16일 노경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김광일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관리처 차장, 광주전남연구원 박준필 기획연구실장, 박인기 광주시 건설행정과 사무관, 나상인 나주시 기획예산실장 등이 참여한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전담팀(TF)을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낙동강 친수구역 개발사업)에는 5조4386억원이 투입된 데 반해 영산강 일원 친수구역 사업비는 124억원에 그친다며 지역 균형 차원에서 승촌보 개발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승촌보 일원에 낙동강과 맞먹는 사업비를 들여 빛가람 혁신도시와 연계된 대단지 주거단지, 산업단지, 레저시설 등을 조성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이날 말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현장을

4대강 등 국가하천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개선된 구역, 하천 양쪽 2km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해 10만㎡ 이상이 지정 대상이다.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개발할 수 있다.

방문하고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3월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사업 추진 구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4대강사업 결과로 영산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는데 지역 지자체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비판한 뒤 “도시계획 검토, 경제성 및 환경성 입증 없이 추진된 사업은 재정적 부담과 생태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동강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경제성이 과장돼 해당 지역에서조차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며 “영산강 친수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기업 환경지원제도’ 한눈에...안내서 발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분야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총 60개의 환경 지원제도를 소개한 '2016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는 환경기술 연구개발(R&D), 창업-벤처기업, 인증-검증, 금융-판로 지원, 환경보전-안전, 해외진출 수출지원, 전문인력 교육, 친환경생활 지원 등 총 8개 분야를 다뤘다.

특히 이번 종합안내서는 '내게 필요한 기업지원제도는?'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 기업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 분야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방대한 정보를 자신에게 적절한 지원제도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이들에

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환경보건과 안전에 관한 지원제도의 설명이 새로 추가됐다. 올해부터 '환경영양염류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제도와 위해우려제품 안전품질관리 지원제도 내용을 포함했다. 이 밖에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사업,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 활용법 등 최신 환경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했다. 2016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녹색연합, 오늘 ‘습지 보존 세미나’

광주전남녹색연합은 24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광주시 습지생물다양성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습지 생물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친환경 건설이며, 주제 발표는 김흥식 호남대학교수가 맡는다. 주제 발표 뒤에는 환경 운동 활동가,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단체 토론이 이어진다. 광주전남녹색연합과 전진속 광주시

의원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환경단체들과 함께 광주지역 습지 보존과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하려고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는 연말까지 총 14차례로 준비됐다. 문의 광주전남녹색연합 062-233-6501.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신축상가 원룸 매매(전대정문)

**전대 후문/북구청 주차장 2분!** (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아아파트 후문앞 코너)

임대완료

정 남향

4층 주택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 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 주인직매) 010-6670-9800 010-7384-7800

### 첨단지구 8층 상가, 오피스텔 매매

**광주 최초**  
(연구소 및 상가 전문 건물)

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경치좋음)

■ 감정가 (분할등기시) → 56억  
 ■ 용자 → 31억 가능  
 ■ 매가 → 38억

010 - 6834 - 4800      010 - 6832 - 9700